2022년 03호

호주 콘텐츠 산업동향

2022년 호주 도서·출판만화·웹툰시장 동향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호주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AUSTRALIA

2022 년 3 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이슈	▶ 2022 호주 도서·출판만화·웹툰시장 동향 1. 호주 도서시장 현황 2. 호주 출판만화시장 현황 3. 호주 웹툰시장 현황	도서 만화책 일본 만화 웹툰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2.08.17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심층이슈

I. 2022년 호주 도서·출판만화·웹툰시장 동향

작성순서

1. 호주 도서시장 현황
2. 호주 출판만화시장 현황
3. 호주 웹툰시장 현황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개요: 호주는 도서 강국으로 전체 도서출판 규모는 2022년 기준 1조 1,440억 원에 이르며, 전체 2,569만 인구 중 오디오북 청취 인구는 660만 명, 전자책 이용 인구는 334만 명에 이름. 2019년 신규 출판 도서는 22,634종으로 총 출판사는 5,564개 업체가 영업 중으로 도서출판의 절반 이상(54%)이 인쇄 형식인 지장본(페이퍼백)으로 출판되고 있음. 호주 도서시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2년간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면서 도서시장 성장률 또한 감소하는 중. 주요 도서 판매업체는 북토피아, 아마존, 디목스, QBD 등이 있으며 호주 작가의 인기가 높아 베스트셀러 순위 대부분 호주 작가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음.

출판만화의 경우 호주에서는 한 해 25,000종 이상의 만화가 판매되며 총 판매 부수는 100만 권으로 약 300억 원의 매출 규모를 보임. 만화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평균 약 3만 원을 소비함. 호주의 주요 만화 관련 축제로 〈오즈 코믹콘〉, 〈스매쉬!〉, 〈코믹스포〉, 〈퍼스 코믹 아트 페스티벌〉 등이 있으며 시드니, 멜버른, 퍼스 등 호주의 다양한 주요 도시에서 개최 중.

웹툰의 경우 안드로이드 매출 순위에서 상위 10개 중 한국계 플랫폼이 6개로 대다수이며, 미국의 〈마블 언리미티드〉, 일본의 〈소년 점프〉, 〈망가렌타〉, 중국의 〈웹코믹스〉 등도 상위에 자리하고 있음.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는 한국의 웹툰 기반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웹툰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향후 웹툰시장의 성장의 귀추가 주목됨.

1 호주 도서시장 개요

1. 호주 도서출판시장 규모

-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 에 따르면, 2022 년 기준 전체 도서출판 시장 규모는 8 억 8,100 만 달러[1] (약 1 조 1,440 억 원) 규모이며 2025 년까지 연평균 0.62% 성장하여 9 억 100 만 달러(약 1 조 1,700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2 년 기준으로 전체 도서출판시장 중 일반 도서(인쇄출판도서와 오디오북의 합계)는 6 억 5,900 만 달러(약 8,557 억 원), 전자책은 2 억 2,300 만 달러(약 2,896 억 원) 규모로 전자책은 전체 도서시장 중 약 25.1% 수준이며, 2025 년까지 전자책은 1.20%, 일반 도서는 0.42%로 다소 정체된 성장을 보여 전체 도서 중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도 25.8%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오디오북의 경우 제작에 드는 큰 비용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2014 년 호주에 진출한 아마존(*Amazon*)의 오디블(*Audible*)에 따르면 오디오북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20 년 북토피아(*Booktopia*)와 라쿠텐 코보(*Rakuten Kobo*)가 협업을 통해 북토피아 고객들이 코보의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제공하면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시장은 경쟁을 통해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오디블에 따르면, 현재 오디오북을 청취하는 호주 인구는 660 만 명이며 밀레니얼 세대에서 55%가 음악 대신 오디오북 및 팟캐스트를 듣는 것으로 조사됨. 오디블은 2020 년 호주의 인기 코미디언인 셀레스트 바버(*Celeste Barber*)를 내세운 광고를 통해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도서시장에서 오디오북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후보로 떠오르고 있음.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25 CAGR
인쇄본/오디오	651	654	656	659	663	666	668	0.42%
전자책	210	219	221	223	227	230	232	1.20%
합계	**861**	**873**	**877**	**881**	**890**	**896**	**901**	**0.62%**

[표 1] 호주 도서시장 규모 및 전망, 2016~2025
(출처: PwC, 2021)

- 글로벌 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 년 호주의 전자책 사용자는 전체 인구 2,569 만 명 중 13.1%인 334 만 명이며 전자책 사용 인구는 2027 년까지 13.3%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인구통계적으로는 전체 사용자 중 55.6%가 남성으로 남성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며, 43.5%가 고소득군으로 조사되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전자책 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2022년 8월 5일 달러-원 환율 기준 (1달러 = 1,298.50원)

2. 호주 도서 소비 현황

- 호주 & 뉴질랜드 도서출판 미디어 북스앤퍼블리싱(*Book+Publishing*)에 따르면, 2019 년 호주에서 출판된 신규 도서 수는 22,634 종으로 총 출판사는 5,564 개로 지난 몇 년간 4,000 개 미만에 머물던 출판사 업체 수에서 큰 수치로 증가하였음. 출판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판도서는 2018 년 24,738 권 대비 2,000 권 이상 감소함.

- 2019 년 전체 출판된 도서 중 절반 이상(54%)이 지장본(페이퍼백)으로 출판되었으며, 양장본(하드커버)는 10%를 차지하여 인쇄출판이 전체 중 64%로 조사됨. 전자책 및 기타 디지털 포맷은 17%, 디지털 오디오북은 9%로 집계됨. 오디오북은 출판도서 중 2017 년 15%, 2018 년 10%와 비교할 때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닐슨 북스캔(*BookScan*)에 따르면, 2020 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호주 도서시장은 이례적으로 7.8% 증가한 12 억 5,000 만 호주달러[2](약 1 조 1,274 억 원)에 달했으며, 총 판매 도서량은 6,700 만 권으로 조사됨. 2021 년에는 도서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며 2.5% 증가한 13 억 호주달러(약 1 조 1,725 억 원)로 총 판매 도서량은 작년 대비 1% 감소한 6,540 만 권을 기록하였음.

- 일반적으로 호주는 크리스마스 전 4 주간이 도서 판매가 집중되는 기간이며 2021 년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총 1,030 만 권이 판매되었으며 총 가치는 2 억 200 만 호주달러(약 1,822 억 원)를 기록함.

- PwC 에 따르면, 2021 년 '읽기'와 연관된 전체 매출 중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는 인터넷 광고 64%, 신문 14%, OOH(*Out of Home*, 옥외광고) 6%, 잡지 2%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 발발 직후에는 도서 판매가 급감하였으나 2020 년 4 월부터 회복하여 호주의 최대 온라인 도서 판매업체 북토피아(*Booktopia*)에 따르면 2020 년에 전년 대비 매출액이 28% 증가하였다고 밝힘. 코로나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동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도서 주문이 증가하여 일간 30,000 권 이상의 책이 발송됨.

- 북토피아에 따르면, 2021 년 회사의 수익은 전년 대비 35%의 매출 성장을 보고하였으며, 총 판매 부수도 650 만 부에서 27% 증가한 820 만 부이며 고객당 연간 평균 지출액은 111.43 호주달러(약 100,000 원)에서 126.85 호주달러(약 110,000 원)로 증가하였음. 평균 주문 금액 또한 65.08 호주달러(약 59,000 원)에서 71.07 호주달러(약 64,000 원)로 증가함.

- 코로나 19 로 촉발된 팬데믹 기간은 여가 생활을 채우기 위한 독서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인쇄도서 판매의 성장은 하락하고 있음. 2020 년 인쇄도서 판매는 1.63% 성장에서 2022 년 0.5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호주 외 다른 영어권 국가의 예측 추세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

1) 2022년 8월 5일 호주달러-원 환율 기준 (1호주달러 = 901.94원)

- 틱톡(*TikTok*)이 새로운 소셜미디어로 부상함에 따라 *#booktok* 해시태그는 2020 년 처음 나타난 이후로 총 430 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가장 번성하는 북클럽이 되어가고 있음. 호주에서도 많은 독자가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책을 추천받고 있으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

- 호주에 진출한 아마존(*Amazon*)은 2017 년 12 월부터 호주에서 인쇄도서를 판매하고 있으나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며, 2004 년에 설립된 호주의 종합 도서 판매사이트인 북토피아(*Booktopia*)가 호주의 최대 도서 판매사이트로 자리하고 있음.

-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체인들은 디목스(*Dymocks*), QBD, 콜린스(*Collins*) 등이 있으나 최근 5 년 사이 온라인 도서 판매가 보편화하면서 매장 수를 줄이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후 매장 방문이 줄어들면서 온라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

순번	로고	업체명	주요 특징	매장 수	웹사이트
1	booktopia	북토피아 (*Booktopia*)	2004 년 설립, 호주 최대 온라인 서점, 연 매출 1 억 6,500 만 달러 이상, 2015 년 서점 '앵거스 & 로버트슨' 인수	없음	booktopia.com.au
2	amazon	아마존 (*Amazon*)	미국 아마존 호주 지사 2017 년 운영 시작	없음	amazon.com.au
3	DYMOCKS dymocks.com.au	디목스 (*Dymocks*)	1879 년 설립, 홍콩, 뉴질랜드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해외지사 사업중단	50 개	dymocks.com.au
4	"QBD" The Bookshop!	퀸즐랜드 북 디포 (QBD, *Queensland Book Depot*)	퀸즐랜드 주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서점을 보유한 대형 서점 체인	68 개	qbd.com.au
5	Collins Booksellers	콜린스 북셀러스 (*Collins Booksellers*)	1922 년 설립, 2011 년 80 개의 매장을 보유했으나 현재 26 개로 축소	26 개	collinsbooks.com.au
6	Koorong	쿠롱 (*Koorong*)	호주 전역에 위치한 기독교 서점 체인으로 가장 큰 성경, 기독교 서적, 미디어 판매업체	14 개	koorong.com
7	BOOKS Kinokuniya	키노쿠니야 (*Kinokuniya*)	일본계 글로벌 서점 체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어 등 다양한 언어로 총 30 만 권 보유, 일본 만화책 섹션 보유	1 개	kinokuniya.com.au

[표 2] 호주 주요 서점
(출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자체조사, 2022.08)

- 호주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 대체로 글로벌 베스트셀러 외에도 자국 내 호주 작가의 인기가 높은 편이며 2016 년 호주 작가 제인 하퍼(*Jane Harper*)의 범죄 소설 〈드라이(*Dry*)〉가 출판된 이후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리, 범죄 소설류가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닐슨 북스캔에서 조사한 2021 년 상위 10 개 베스트셀러 도서 순위에 따르면, 상위 5 개 도서 모두 호주 작가의 작품이며 상위 10 개 작품 중 7 개의 작품이 호주 작가의 작품으로 조사됨. 나머지 작품들도 영국, 미국 등 영미권 작가의 작품으로 집계되어 번역 도서 대비 자국 내 작품 혹은 영어 작품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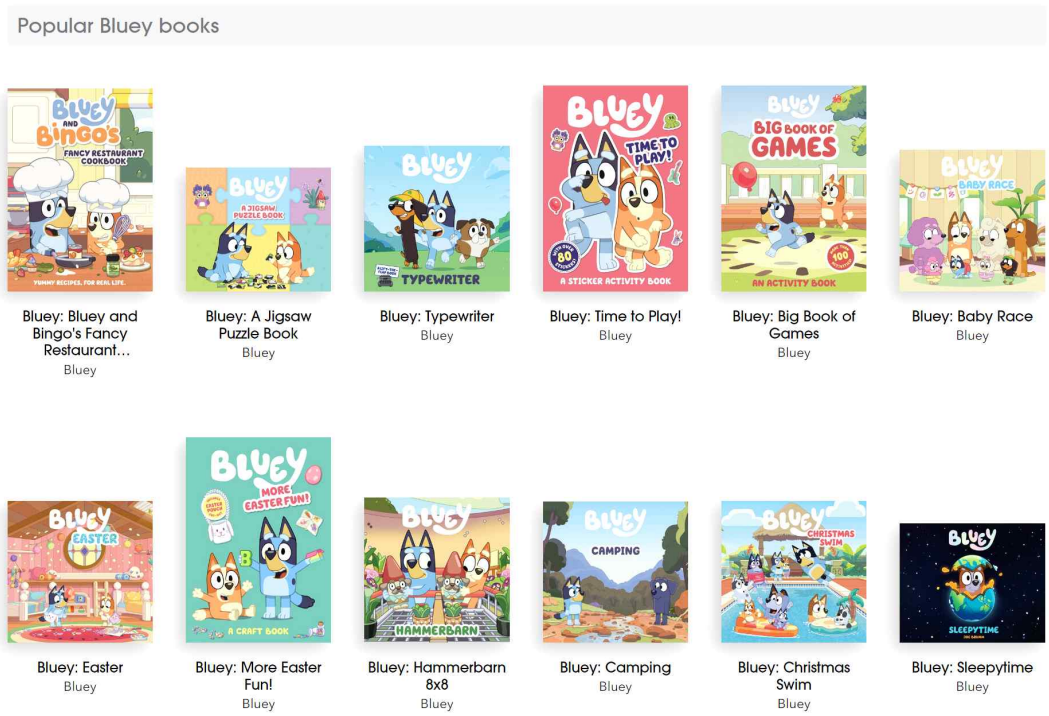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장르	작가	국가	출판사
1	사과는 떨어지지 않는다 (*Apples Never Fall*)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리앤 모리아티 (*Liane Moriarty*)	호주	맥밀런 (*Macmillan*)
2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The Happiest Man on Earth*)	논픽션 자서전	에디 제이쿠 (*Eddie Jaku*)	호주	맥밀런 (*Macmillan*)
3	143 층 나무집 (*The 143-Storey Treehouse*)	아동용 동화 그림책	앤디 그리피스 & 테리 덴튼 (*Andy Griffiths & Terry Denton*)	호주	팬 (*Pan*)
4	맨발의 투자자 (*The Barefoot Investor*)	투자, 경제	스콧 페이프 (*Scott Pape*)	호주	윌리 (*Wiley*)
5	잃어버린 단어 사전 (*The Dictionary of Lost Words*)	역사 소설	핍 윌리엄스 (*Pip Williams*)	호주	어펌 (*Affirm*)
6	죽는게 낫겠어 (*Better Off Dead*)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리 & 앤드류 차일드 (*Lee & Andrew Child*)	영국	벤텀 (*Bantam*)
7	가재가 노래하는 곳 (*Where the Crawdads Sing*)	역사 소설	델리아 오언스 (*Delia Owens*)	미국	코세어 (*Corsair*)
8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The Boy, The Mole, The Fox and The Horse*)	에세이 그림책	찰리 맥케시 (*Charlie Mackesy*)	영국	에버리 (*Ebury*)
9	블루이: 더 풀 (*Bluey: The Pool*)	아동용 그림책	블루이 (*Bluey*)	호주	퍼핀 (*Puffin*)
10	블루이: 빅 백야드 (*Bluey: Big Backyard*)	아동용 그림책	블루이 (*Bluey*)	호주	퍼핀 (*Puffin*)

[표 3] 2021년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도서 순위
(출처: 닐슨 북스캔, 2021)

- 2021 년 도서 판매량을 살펴보면 호주의 아동 문학작가 안 도(*Anh Do*)가 총 955,000 부를 판매하며 작가 중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함. 개별 작품으로 살펴보면 1 위의 〈사과는 떨어지지 않는다〉가 200,000 부, 2 위의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126,500 부, 〈143 층 나무집〉이 108,970 부, 〈맨발의 투자자〉가 108,320 부를 기록함.

- 상위 작품 중 호주 동화 작가 앤디 그리피스(*Andy Griffiths*)의 〈143 층 나무집〉은 한국에서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가재가 노래하는 곳〉,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국내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인기 작품 중 동화책도 상위 10 위 내 3 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러스트레이션이 가미된 그림책을 포함하면 총 4 권의 그림책이 상위 도서에 집계되어 아동 도서와 그림책의 인기가 높은 편. 〈블루이(*Bluey*)〉의 경우 호주 ABC 방송사에서 제작한 아동용 애니메이션으로 2018 년 방영 이후 호주 현지에서 현재 큰 인기를 얻고 있음. 블루이 시리즈는 그림책으로도 제작되어 2020 년에만 650,000 부 이상 판매되며 아동용 도서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그림 1] 아동용 그림책 시리즈 블루이(*Bluey*)
(출처: 펭귄북스, 2022.08)

- 온라인 서점에는 영어로 번역된 한국 도서들도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 TV 에서 방영한 〈파칭코(*Pachinko*)〉의 원작 소설인 이민진 작가의 〈파칭코(*Pachinko*)〉, BTS 가 언급한 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Almond*)〉, 조남주 작가의 〈82 년생 김지영(*KIM JIYOUNG, BORN 1982*)〉 등의 작품들이 영어로 번역되어 호주 현지에 소개되고 있음.

2 호주 출판만화시장 현황

1. 호주 출판만화시장 규모

- 닐슨 북스캔에 따르면, 호주에서 2020 년 한 해에 25,000 종류 이상의 만화(*Graphic Novel*)가 판매되며 총 판매 부수는 100 만 권으로 2,310 만 달러(약 300 억 원)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호주에서 만화 카테고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다른 성인 소설 카테고리와는 다른 특징을 보임. 2020 년 기준으로 구매자 1 인당 평균 23.49 달러(약 3 만 원)를 지출하였으며 구매 시 권장 소매가에서 평균 12.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였고, 이는 전체 도서시장의 일반적인 할인율 20.3%보다 낮은 할인율에서 구매하는 경향을 보임.

- 2020 년 판매된 만화책 중 상위 10 개 작품이 전체 판매 부수 중 7%를 차지하였으며, 보통 시리즈 작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음. 호리코시 코헤이(*Kohei Horikoshi*)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My Hero Academia*)〉 시리즈가 판매 상위 10 개 중 5 개를 차지함.

- 2021 년 호주 예술 위원회(*The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에서 260 명의 그래픽 스토리텔러(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등)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 가능성이 크고(60 세 이상인 경우 남성이 85%), 젊을수록 여성일 가능성이 더 큰 편(18~29 세의 경우 여성이 54%), 바이너리(*Binary*) 또는 트렌스젠더의 비율은 18~29 세에서 19%로 조사됨.

- 응답자 설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1%의 응답자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 응답자의 15%는 의약, 건강, 웰빙,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한다고 응답. 응답자의 28%는 본인들의 기술이 교육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응답함.

- 특히 그래픽 스토리텔링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서비스, 복잡한 메시지와 아이디어를 단순한 시각적 형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기에 신규 서비스와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매김 중.

- 반면, 그래픽 스토리텔러를 전업으로 생계를 꾸리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며, 설문 응답자의 50%는 창의적이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거의 절반(47%)이 실무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정적 수익 부족'을 꼽음.

- 설문에 응답한 4 명 중 1 명은 전업 작가로 수입의 100%를 창작 활동을 통해 얻고 있으며, 이들 중 43%가 연간 10 만 호주 달러(약 9,000 만 원)의 수입을 버는 고소득자로 나타남.

- 응답자의 대다수가 비공식 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작가들 사이의 기술 교환을 의미함. 커뮤니티 내에서의 멘토링 및 1:1 교육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46%, 온라인 교육 41%로 응답하여 호주 내에서는 만화 창작 커뮤니티가 정보 공유와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문화적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2. 호주 출판만화 소비시장 현황

- 닐슨(*Nielsen*)에 따르면, 2021 년 시장 도서 판매 성장을 주도한 분야는 일본 만화(망가, *Manga*) 시장으로 만화 출판사 비즈 미디어(*Viz Media*)가 전년 대비 두 배에 가까운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만화 시장은 2021 년에 전년 동기 대비 86% 성장함.

- 2014 년 대비 2021 년에는 10 배에 가까운 일본 만화가 판매되었으며, 이러한 만화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호주의 서점 체인인 QBD 는 2021 년 만화 전용 온라인 상점을 출시하였으며, QBD 에 따르면 전체 일본 만화 판매 중 30%가 소매업체에서 발생한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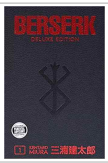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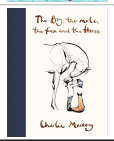
- 주요 만화 관련 페스티벌은 미국 뉴욕의 코믹콘 지역 프랜차이즈인 〈오즈 코믹콘(*OZ Comic-Con*)〉이 가장 큰 행사로 올해는 호주 주요 도시인 캔버라(8/27~28), 브리즈번(9/17~18), 시드니(9/24~25)에서 개최 예정. 그 외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최대 행사인 〈스매쉬!(*SMASH!*)〉가 매년 시드니에서 개최되며 팬클럽이 주도하는 팝 문화행사인 〈코믹스포(*Comixpo*)〉, 서호주 박물관이 개최하는 〈퍼스 코믹아트 페스티벌(*Perth Comic Arts Festival*)〉 등이 있음.

순번	로고	행사명	특징	지역/일정	웹사이트
1	OZ COMIC CON 2022	오즈 코믹콘 (OZ Comic-Con)	뉴욕 코믹콘의 지역 행사로 2012 년부터 시작되어 호주 주요 도시에서 진행, 입장료 $35 부터	시드니 2022. 09.24~25	ozcomiccon .com
2	SMASH! スマ	스매쉬! (SMASH!) 시드니 망가 아니매 쇼	2007 년부터 시작된 최대 일본 팝문화 행사로 2019 년 관람객 2 만 2 천 명 이상 달성	시드니 2022. 07.16.~17	smash.org .au
3	comiXpo	코믹스포 (Comixpo)	2016 년부터 시작된 팝 문화 박람회로 입장료 $5, 코스프레 플레이어, 12 세 미만은 무료 입장	멜버른 2022.11.01	comixpo .com
4	PCAF	퍼스 코믹 아트 페스티벌 (*Perth Comic Arts Festival*)	호주 만화 제작자 작품 공유 및 만화 제작자 지망생을 위한 워크샵 진행, 무료 입장	퍼스 2022. 08.06.~07	pcaf.org.au

[표 4] 호주 주요 만화 관련 행사
(출처: 인도네시아 비즈센터 자체조사, 2022.08)

- 호주 만화책 카테고리 랭킹을 살펴보면, 아마존 8 월 첫째주를 기준으로 DC 코믹스 산하의 버티고에서 출판한 〈샌드맨(*The Sandman*)〉 시리즈가 1 위, 2 위를 차지하였으며 3 위는 미국의 소셜미디어 작가가 독립 출판한 〈심술궂은 100 마리 동물들(*100 Grumpy Animals*)〉, 나머지 4 위부터 9 위는 일본 만화가 차지하였으며 최근 작고한 미우라 켄타로 작가의 미완 작품인 〈베르세르크 디럭스판 1 권〉이 5 위, 나머지는 소년점프 연재만화이자 미국의 출판사 비즈미디어(*VIZ Media*)에서 출판한 〈체인소 맨(*Chainsaw Man*)〉 시리즈가 차지함.

- 미국의 슈퍼 히어로 장르와 일본의 소년 학원물 작품이 순위 내 다수를 차지하며 호주 만화책 소비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이 가미된 그림책이 3 위와 10 위에 자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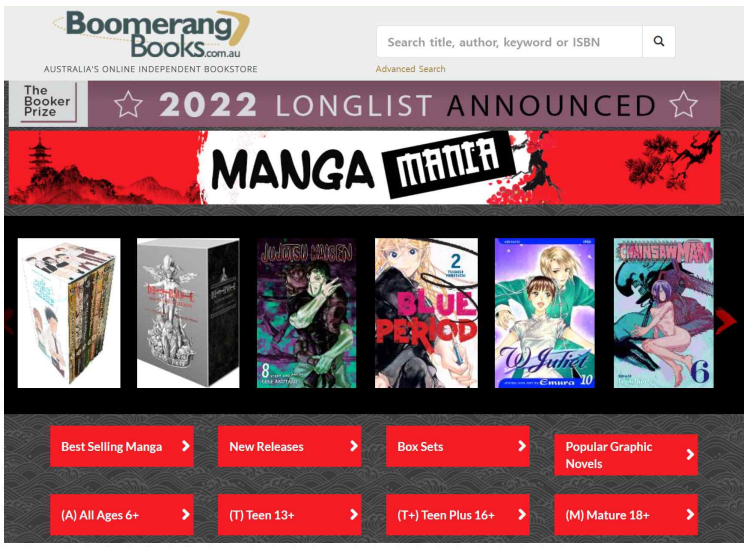
순위	표지	작품명	장르	작가	국가	출판사
1		샌드맨 2 막 (*The Sandman: Act II Audible Audiobook – Original recording*)	다크 판타지 히어로	닐 게이먼 (*Neil Gaiman*)	영국	버티고 (*Vertigo*)
2		샌드맨 1 부 (*Sandman Vol. 1: Preludes & Nocturnes – 30th Anniversary Edition*)	다크 판타지 히어로	닐 게이먼 (*Neil Gaiman*)	영국	버티고 (*Vertigo*)
3		심술궂은 100 마리 동물들 (*100 Grumpy Animals*)	유머	비스트플랩스 (*Beastflaps*)	미국	독립출판
4		체인소 맨 4 권 (*Chainsaw Man Vol. 4: Volume 4*)	다크 판타지 히어로	후지모토 타츠키 (*Tatsuki Fujimoto*)	일본	비즈 미디어 (*VIZ Media*)
5		베르세르크 디럭스판 1 권 (*Berserk Deluxe Volume 1*)	다크 판타지	미우라 켄타로 (*Miura Kentaro*)	일본	다크 하우스 북스 (*DARK HORSE BOOKS*)
6		체인소 맨 7 권 (*Chainsaw Man, Vol. 7*)	다크 판타지 히어로	후지모토 타츠키 (*Tatsuki Fujimoto*)	일본	비즈 미디어 (*VIZ Media*)
7		체인소 맨 8 권 (*Chainsaw Man, Vol. 8*)	다크 판타지 히어로	후지모토 타츠키 (*Tatsuki Fujimoto*)	일본	비즈 미디어 (*VIZ Media*)
8		체인소 맨 5 권 (*Chainsaw Man, Vol. 5*)	다크 판타지 히어로	후지모토 타츠키 (*Tatsuki Fujimoto*)	일본	비즈 미디어 (*VIZ Media*)
9		체인소 맨 6 권 (*Chainsaw Man, Vol. 6*)	다크 판타지 히어로	후지모토 타츠키 (*Tatsuki Fujimoto*)	일본	비즈 미디어 (*VIZ Media*)
10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The Boy, The Mole, The Fox and The Horse*)	일상	찰리 맥케시 (*Charlie Mackesy*)	영국	에버리 (*Ebury*)

[표 5] 호주 아마존 코믹스, 망가, 그래픽 노블 베스트 셀러
(출처: 호주 아마존, 2022.08.05)

- 오프라인 만화책 서점은 호주 전역에 약 40 개 정도가 있으며 만화책만을 취급하는 서점 중 영미권 만화를 취급하는 〈킹즈 코믹(*Kings Comics*)〉와 일본 만화를 취급하는 〈키노쿠니야(*Kinokuniya*)〉 서점이 규모가 가장 큼. 온라인 서점으로는 〈망가메이트(*Mangga Mate*)〉, 〈매드맨 엔터테인먼트(*Madman Entertainment*)〉, 〈부메랑 북스(*Boomerang Books*)〉가 일본 만화(망가) 섹션을 별도로 보유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판매 중.

순번	로고	업체명	주요 특징	매장 수	웹사이트
1		킹즈 코믹스 (*KINGS Comics*)	1986 년 설립, 시드니 시내에 위치한 만화 서점, 마블, DC 등 영미권 만화 관련 작품들, 액션 피규어 등을 판매	1 개	kingscomics .com
2		키노쿠니야 (*Kinokuniya*)	일본계 글로벌 서점 체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어 등 다양한 언어로 총 30 만 권 보유, 망가 섹션 보유	1 개	kinokuniya .com.au
3		망가메이트 (*Manga Mate*)	일본 만화, 라이트 노벨, 액션 피규어 등 일본 만화 관련 전문점	없음	man-gamate.shop
4		매드맨 엔터테인먼트 (*Madman Entertainment*)	호주 멜버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호주 배급 및 저작권 관리 회사, 일본 애니메이션 배급으로 성장, 망가 및 피규어 판매	없음	madman .com.au
5		부메랑 북스 (*Boomerang Books*)	2002 년 설립, 호주 온라인 독립 서점을 표방, 150 만 권 보유, 망가 매니아 섹션을 별도 보유	없음	boomerangbooks.com.au

[표 6] 호주 주요 만화책 서점
(출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자체조사, 2022.08)



[그림 2] 호주 온라인 서점 망가 코너
(출처: 부메랑 북스, 2022.08)

3 호주 웹툰시장 현황

1. 호주 웹툰시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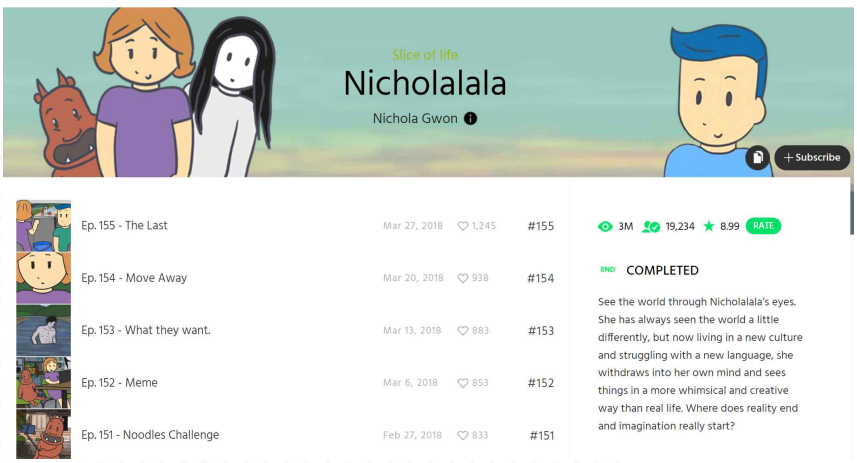
- 호주에서 전통적으로 강세인 미국의 마블(*MARVEL*) 코믹스 잡지의 디지털 버전인 〈마블 언리미티드(*MARVEL UNLIMITED*)〉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DC 코믹스 또한 올해 3 월 온라인 구독 버전인 〈DC 유니버스 인피니트(*DC UNIVERSE INFINITE*)〉를 연간 구독료 99.99 호주 달러(약 9 만 원)에 출시하며 호주 온라인 만화 독자층을 흡수하고 있음.

- 현재 호주에서 서비스 중인 주요 한국 디지털 만화 플랫폼은 네이버 라인의 〈웹툰(*WEBTOON*)〉, 리디의 〈만타코믹스(*Manta Comics*)〉, 〈투믹스(*Toomics*)〉, 〈레진 코믹스(*Lezhin Comics*)〉 등이며 단행본보다는 웹만화 형식의 상하 스크롤 방식의 포맷을 채택하고 있음. 한국 만화 플랫폼 업체 대다수가 호주 지사를 따로 갖고 있지 않으며, 호주 시장만을 겨냥하기보다는 영어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영어권 국가와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 중.

- 2021 년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한국 웹툰 선호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18 개 조사국 중 9 위로 응답자의 41.8%가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한국 웹툰 소비 의향에서도 43.3%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조사국 중 8 위를 차지하여 한국 웹툰에 대한 호불호 순위에서 선호에 가까운 편.

- 다만 실제 한국의 웹툰을 소비하는 주요 국가 순위에서 일본 31.8%, 중국 23.4%, 북미 15.7%, 태국 13.5%, 유럽 5.9%,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4.8%, 대만 3.4%, 베트남 1.6%, 기타 0.6% 순으로 조사됨. 호주는 기타 0.6%에 포함되어 주요 한국 웹툰 소비국가에 속하지 않음.

- 호주는 자국 작가들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기에 호주 작가의 발굴이 뒷받침된다면 한국 웹툰 플랫폼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아직은 한국 웹툰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호주 작가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며, 한국 남성과 결혼한 호주 작가 니콜라 권(*Nichola Gwon*)이 한국 일상을 다룬 〈니콜라라라(*Nicholalala*)〉를 3 년간(2015~2018 년)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사례가 있음.



[그림 3] 호주 작가의 웹툰 작품, 〈니콜라라라〉
(출처: 웹툰(Webtoon), 2022.08)

2. 호주 웹툰 소비 현황

- 호주 웹툰 앱 순위를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매출액 기준 상위 10 개 업체 중 한국 업체가 4 개이며, 한국계 미국 회사인 〈타파스(*Tapas*)〉와 〈태피툰(*Tappytoon*)〉을 포함하면 총 6 개가 한국 업체로 집계됨.

-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뒤 해외에 진출한 〈웹툰〉과 〈레진 코믹스〉〉와 달리 〈타파스〉, 〈태피툰〉, 〈만타 코믹스〉는 사업 초기부터 영어 서비스로 해외 시장을 공략한 업체로 영어 작품이 주요 콘텐츠로 자리하고 있음.

- 한국 이외에 전통적으로 영미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마블의 디지털 만화(웹툰) 구독제 서비스 〈마블 언리미티드〉와 일본의 만화 잡지 〈소년 점프〉 디지털판, 디지털 만화(웹툰)에 대여 개념을 도입한 〈망가 렌타(*Mangga Renta*)〉, 중국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웹툰 플랫폼인 〈웹코믹스(*Webcomics*)〉가 상위권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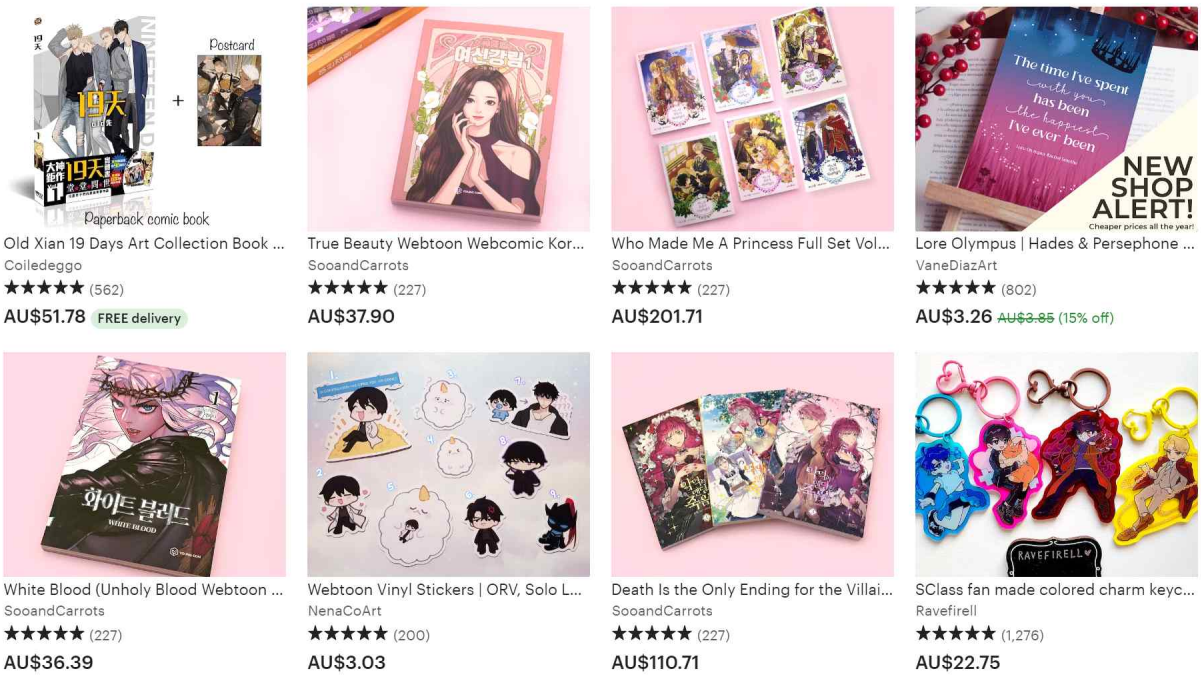
순위	로고	서비스명	특징	국가
1		웹툰 (*WEBTOON*)	라인 웹툰 서비스의 글로벌 버전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인니어, 태국어 제공)	대한민국
2		타파스 (*Tapas – Comics and Novels*)	한국 대표가 미국에서 설립한 미국 최초의 웹툰 플랫폼, 2021 년 5 월 카카오엔터가 인수	미국
3		태피툰 (*Tappytoon Comics & Novels*)	한국 기업 콘텐츠퍼스트가 운영하는 한국 웹툰 영어 번역 서비스 플랫폼	미국
4		만타코믹스 (*Manta: Comics & Graphic Novels*)	한국 리디(RIDI)에서 출시한 영문 웹툰 서비스, 월간 구독 모델	대한민국
5		마블 언리미티드 (*Marvel Unlimited*)	미국 마블에서 출시, 구독모델 (월간 $9) 출시 한 달 이상된 작품은 무료 이용 가능	미국
6		소년 점프 (*Shonen Jump Manga & Comics*)	일본 만화 잡지 소년 점프의 디지털 버전 (인쇄 만화 스캔본)	일본
7		웹코믹스 (*Webcomics – Webtoon & Manga*)	중국 제작 웹툰을 영어, 인니어, 태국어, 중국어로 서비스하는 웹툰 플랫폼	중국
8		투믹스 (*Toomics – Read Premium Comics*)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일본어, 불어 등 다양한 언어 제공 웹툰 서비스	대한민국
9		레진 코믹스	어른을 위한 만화 서비스를 표방하며 광고 없이	대한민국

		(*Lezhin Comics - Daily Releases*)	유료화 모델로 운영	
10		망가 렌타 (*Manga Renta*)	디지털 만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렌탈 서비스를 도입, 1 달러에 48 시간 대여, 2 달러에 구매 가능	일본

[표 7] 호주 안드로이드 웹툰 앱 매출 순위
(출처: 시밀러웹(*Similarweb*), 2022.08.05.)

- 호주 디지털 만화 시장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한국의 웹툰 형식과 태블릿과 모니터로 읽는 일본과 미국의 스캔본 형식이 모두 상위권에 자리하면서 혼재하고 있으며, 두 방식 모두 호주에서 개발되거나 호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호주에서도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는 웹툰 원작 드라마에 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웹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웹툰이 다양한 미디어믹스를 통해 알려질수록 원작 작품을 소비하려는 구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여신강림〉, 〈재혼황후〉 등 인기 웹툰 작품의 경우 현지 온라인 업체에서 단행본과 관련 머천다이즈 제품도 판매 중.



[그림 4] 호주 웹툰 관련 머천다이즈 판매
(출처: *etsy.com*, 2022.08.05)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김영수 센터장	+62-21-2256-2396	yskim@kocca.kr
주윤지 차장	+62-21-2256-2396	juliajoo@kocca.kr

호주 콘텐츠 산업동향

2022년 03호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김영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장 주윤지 차장
집필자	신진세 대표 (PT. EPIN) 이수연 과장 (PT. EPIN)
발행인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행일	2022년 8월 10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